"음악봉사로 얻은 마음의 위안"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마이산 탑사 탑밴드

"악기 연주를 취미로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큰 보람으로 다가올 줄 몰랐어요. 나의 즐거움이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니 행복합니다."

전주시 기린로변의 한 지하실에서 마이산 탑사 탑밴드의 연습이 시작되자 북을 비롯한 여러 악기들의 흥겨운 연주소리로 들썩인다. 4명으로 구성된 마이산 탑사 탑밴드는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의 지도 아래 매일 별도의 지하 연습실로 출근한다.

지난 2013년 창단된 탑밴드는 초창기 10여 명의 단원들이 참여했지만 지금은 각 단원들의 기량 차이로 4명만이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진성 스님과 대구 혜인정사 진송 스님이 객원으로 출연하며 6명이 공연에 나서고 있다.

멤버들은 모두 50대와 60대로 구성되어 있다. 단장을 맡고 있는 천순희(천수행) 보살은 올해 66세로 최고령이고, 막내가 53세다. 모두 손자들 재롱을 즐길 나이지만 공연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공연구성은 난타와 색소폰 연주로 비교적 단출하다. 주로 빠른 템포의 트로트 곡과 대중의 귀에 익숙한 클래식 곡 위주로 공연한다.

탑밴드 결성은 진성 스님의 원력에서 시작됐다. 시민선방을 운영하면서 상담과정 중에 신도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난타와 색소폰을 가르친 것이 계기가 됐다. 이것이 발전해 이제는 소규모 공연을 기획할 정도로 성장했다.

진성 스님은 "신도들의 취미를 살리고 그 취미를 바탕으로 음악봉사를 하기 위해 탑밴드를 결성했다"며 "신도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자신들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봉사를 통한 포교에 큰 보람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탑밴드가 재능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곳은 다양하다. 주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 군부대 장병을 위한 위문공연, 교도소 법회, 양로원 위문공연, 산사음악회를 찾는다. 공연장소도 전북지역을 넘어 점차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제주 수정사 나누우리 산사음악회에 출연했고, 10월에는 충남 청양 광덕사 경로잔치에도 나섰다. 이달에는 충남 논산 안심정사 산사음악회에서 공연을 마쳤고, 경북 영천의 3사관학교 공연도 예약됐다. 그동안 출연한 공연 횟수만 100회를 훌쩍 넘겼다. 모든 공연은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된다.

매일 3~4시간 연습을 통해 기량을 연마하고 있는 탑밴드 단원들은 모두 봉사를 통해 개인의 즐거움과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 먼저 천순희 단장은 단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나이 60이 넘어 시작했는데 처음에 너무 어려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도반인 단원들이 옆에서 가르쳐 주고 이끌어준 덕분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난타공연 팀장을 맡고 있는 박성균(진실행) 보살은 내년 남편의 정년 퇴임식에서 멋진 색소폰 연주를 들려줄 깜짝쇼를 준비 중이다. "개인적인 즐거움으로 시작했는데 공연을 할수록 많은 청중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힐링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탑밴드는 앞으로 단독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 다양한 레퍼토리가 완성되면 소외된 이웃들을 초청해 작은 음악회를 열 계획이다. 음악봉사로 많은 이들에게 위안을 주는 탑밴드의 활약이 전국구로 퍼져나가길 기대해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천순희 단장을 비롯한 탑밴드 단원들이 공연에 앞서 연습실에서 호흡을 맞추는 모습.

백제 월남사 복원 위한 발굴조사

송광사 · 남도불교문화硏, 전문가 조사 발표

강진 월남사가 백제시대 전형적인 가람구조를 갖춘 사찰임을 확인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조계종림 송광사(주지 진화)와 남도불교문화연구회는 11월 10일 강진 시문학파기념관에서 학술대회를 열고, 백제시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월남사의 가람과 중요유물인 진각국사 원조탑비의 성격에 대한 전문가 조사 발표를 진행했다.

학술대회에는 △월남사 발굴조사 현황 및 성과(김진희 민족문화유산연구원 연구부장) △월남사 가람 배치에 관한 고찰(천득염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월남사 진각국사 원조탑비의 내용과 성격(전라남도 문화재전문 김희태 위원) △월남사 진국국사 원조탑비의 양식과 특징(신용철 양산시립박물관장) △월남사 진각국사 원조탑비의 서체와 서풍(정현숙 원광대학교 서예문화연구소 교수) 등이 발표됐다.

김진희 연구부장은 "1~7차 발굴조사 결과를 통해 월남사의 가람 배치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월남사는 평지 가람으로 중문, 쌍탑, 금당, 강당과 주위에 회랑을 두르는 삼국시대 전통을 계승한 형태로 조성됐다"며 "13세기 진각국사가 무신정권 실력자와 연관되면서 사세가 확장되고, 조선시대에 점차 쇠퇴하면서 16세기말 경 폐사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황효균 전남대 학예사는 "7차 발굴조사의 가장 큰 성과는 고려후기 이전의 건물지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앞으로 하층 조사를 더 진행하다 보면 1~2년 안에 분명히 백제시대 건물지가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7차 조사서 고려양식 확인
추가 하층조사 기대 높아
법화 스님 "복원불사 필요"

월남사의 가장 중요한 유물 중 하나인 진각국사 원조탑비에 관해서 김희태 위원은 발표를 통해 "진각국사비는 왕명으로 비명 병서를 짓고 글씨를 썼다. 전서 또한 왕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진각국사가 입적한 뒤 승탑은 송광사에 바로 세워지지만, 탑비는 1250년이 되어서야 월남사에 세웠다"며 "이번 진각국사 원조탑비에 대한 조사와 결과물이 불교 문화사와 향촌 사회사까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진각국사 원조탑비의 형식과 특징에 대해서 신용철 관장은 "진각국사 탑비는 신라하대에 성립해 고려중기까지 끊임없이 제작된 한국형 귀부의 사실상 마지막을 장식한 작품이라는데 의미가 각별하다"고 평가했다.

진각국사 원조탑비에 새겨진 글씨에 대해서도 발표가 이어졌다. 정현숙 교수는 "탑비는 고려시대 안진경풍과 저수량풍을 바탕으로 자가풍을 이룬 송 사대가 글씨 유행"이라며 "탑비가 세워진 전라도는 옛 백제 땅인데, 백제는 대대로 구양순풍보다는 곡선미가 돋보이는 저수량풍을 선호했다. 여러 정치적, 종교적 배경과 더불어 글씨의 우월함 때문에 김효인과 탁연이 쓴 이 비는 고려 서예사에 매우 의미 있는 금석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남사 주지 법화 스님은 학술대회에 앞서 "7차에 걸친 월남사지 발굴조사로 가람배치를 확인하고 수많은 불교 유물과 유구를 발굴해 월남사의 옛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됐다"며 "발굴조사와 함께 하루빨리 복원불사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진 월남사지는 13세기 초반 진각국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1~7차의 조사를 통해 백제시대 유구와 가람터가 추가적으로 발견돼 학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내소사에 숨겨진 단청의 멋

대웅보전 단청 기록사진 12월까지 경내서 전시

아름다운 전나무 숲길로 유명한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가 내소사 안에 숨겨진 단청의 아름다움을 드러낸 사진전을 개최했다. 내소사는 보물 291호 대웅보전의 단청을 기록한 사진 60여 점을 봉래루와 설선당에 전시하고 있다.

대웅보전 뒷벽에 그려진 백의보살 좌상, 보물 1268호 내소사 괘불탱, 나한상, 비천상, 옛 내소사 모습 등 쉽게 눈에 띄지 않지만 작품성이 뛰어난 단청을 소개하는 내소사 단청 사진전은 오는 12월 말까지 일반에 공개된다.

특히 대웅보전 외벽의 단청은 꽃살무늬를 제외하고는 오랜 세월동안 빛이 바래 내부 모습이 일반인 눈에 띄지 않았으나 이번 사진전을 통해 황학백학도, 천정 우물정자 안에 그려진 구름문양, 비천상, 불교전통악기 그림 등 다양한 단청의 문화재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를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내소사 단청은 나무빛깔과 나뭇결을 그대로 드러낸 형태의 단청이라 그 가치를 더하고 있다.



내소사 포교국장 혜공 스님이 전시된 단청 사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아름다운 불교문화재를 널리 알리고 탐방객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전시회를 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을 통해 일반에 내소사 단청의 아름다움을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소사는 지난여름부터 봉래루를 일반에 개방해 탐방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불교문화재의 우수성을 일반에 알리는 가교 역할도 하고 있다.

전시회를 감상한 한 탐방객은 "그동안 겉모습만 훑어보고 갔는데 이번 전시회를 통해 대웅보전 내면의 아름다움도 알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흥사, 승군 지도자 서산대사 추계제향

해남 대흥사(주지 월우)는 11월 11일 호국명승장 서산대사의 삶과 사상을 선양하는 호국대성사 서산대제 추계제향을 경내 표충사에서 개최했다.

서산대제는 임진왜란 당시 승군을 지휘했던 팔도선교도총섭 승군장이자 대선사인 서산대사의 업적을 기리는 제향행사로 유교식으로 진행하는 서산대사 국가제향과 불교식 제향으로 진행하는 법요식이 함께 열리는 특색 있는 의식이다. 행사는 해탈문에서 서산대사의 영정이 봉안된 표충사까지 위패봉송을 시작으로 법요식, 행장소개, 봉행사, 인사말, 법문 등이 이어졌다.

정조대왕 때부터 매년 봄 · 가을 국가제향으로 봉행돼오던 서산대제는 일제 탄압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20여 년 전부터 불교식 제향을 실시해왔다. 이후 대흥사성보박물관에 소장된 옛 문헌 〈표충사 향례홀기〉와 〈진설도〉 등의 기록을 근거로 2012년 유교식 국가제향을 복원해 매년 봄 봉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사, '산사의 밥상' 5기 수료…46명 배출

천년고찰에서 사찰음식전문가들이 새롭게 배출됐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11월 9일 '산사의 밥상' 5기 수료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사찰음식 전문가를 배출했다. 강좌는 지난 8월 21일 무더위 속에서 시작해 산사의 다양한 나물류, 전류, 국류 등과 계절 음식 등 강좌를 개최해 두 달간의 교육을 거쳐 46명의 산사의 밥상 전문가를 양성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정성과 마음을 담아 공양 올리겠다는 수강생 모든 분들의 마음이 느껴진다.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찰음식의 품격과 정성이 깃든 음식을 전해주었으면 한다"과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화엄사는 전 국민 건강식탁 프로젝트 '산사의 밥상' 여섯 번째 강좌를 2018년 3월에 시작하며, 2월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수료생들이 직접 만든 사찰음식을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이 둘러보고 있다.

인생의 최대이슈 죽음을 면하는 생로병사 부처님 육년 고행 숨을 멈춘 4분루 진통 정진 마음주머니로 현관을 여는 생사해탈 법은 억억 만겁에 한번 듣고 영상의 자리와 여의보를 내려놓은 진법은 비구니 보살 등 일체종교 성불도 통하는 루진통 수련

마음과 생명과 자성은 염불 말과 문자 참선 그 어떠한 수련도 찾지 못하고 공기주머니에 들어있는 마음과 생명은 오직 현관 문인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존귀하고 위대 하기에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생명은 이생에 올 때 가져온 빚을 염라국에 명을 내려 60일에 한번 드는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진 빚을 감는 천신들의 잔치날이자 수행자들에 지선의 복력으로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신족통 오통은 누구든지 주문없이 하나 그 수복이 다하면 오세고가 나타나 천상계에서 퇴물하여 성불이 없고 루진통을 한자만이 혜안이 열려 마음과 생명의 공기주머니. 들어가는 현관을 보는 견성성불 생사해탈 하는 루진통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오통으로 하였으나 루진통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니라 하신 것은 여러 방편으로 고행을 하기에 단 한번의 루진통 평생 수행한 공력보다도 인법일여 즉신 성불하느라 일체종교가 하나되는 루진통. 주문만이 영과 혼 일체 삼라만상 귀신을 바로 회원상생하는 초능력 얻은 자만이 병겁을 다스리는 정법안장 윈시 반본 하느니라.



心

일체 고액 소멸하는
달마구입처 : 태일
010-9292-3110



환성 지계수복자 태일대사

■ 입제일 : 2017년 11월 27일(화) 밤 9시 ■ 해제일 : 11월 29일(수) 해시
■ 준비물 : 필기도구 간편한 옷 무박 2일. 동참비 1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029-01-2167866 곽한영(태일)
■ 상담전화 : ☎032-502-6625, 010-9292-3110, 010-9718-4449

주소 : 인천시 부평구 대정로 34 청지공사 불선도 천궁도통회
사)대한불교달마조계종 예성용천사 환성 지계수복자 태일대사 합장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